



전임 총장님들의 연세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동료 교수들께,

전임 총장 6분(안세희, 송자, 김병수, 김우식, 정창영, 김한중)이 지난 토요일에 모여서 현재 총장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전임 총장들은 재단이사회와 교수평의회(이하 교평)에게 지난 몇 달 동안 교평이 이사회와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최종안이 대다수 교수들의 뜻과는 다르게 결정되어 교평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세대학을 위해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총장 선출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교평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 현존하시는 모든 전임 총장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연세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고, 이 분들의 충정 어린 권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평은 11월 25일(수)까지 재단이사회와 파국을 막기 위한 최후의 협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24일(화) 신춘과 25일(수) 원주에서 예정되었던 총장후보자 소견발표회는 교평 경과 보고 및 향후 진행에 대한 설명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금)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인준투표는 교수들의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이므로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전되는 상황은 계속 알려 드리도록 하겠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3일

교수평의회 의장 서길수 드림
